中國 夏·商代의 敎育 및 그 발전

— 국가 발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吳 富 尹

(한라전문대 관광중국어통역과 전임강사)

目 次

Ⅰ. 머 리 말
Ⅱ. 「敎」·「育」의 시대적 의미
Ⅲ. 夏代의 敎育 및 그 성격
Ⅳ. 商代의 敎育 및 그 성격
Ⅴ. 맺 음 말

Ⅰ. 머 리 말

사서에서는 夏·商·周를 통칭하여 「三代」라 부른다. 이러한 호칭은 늦어도 周代 말기부터는 사용되었던 것 같다.[1] 문헌에는 이들 3개의 朝代를 항상 함께 열거하고 있어 관념상으로는 앞선 朝代가 멸망하고 난 후 뒤이어 새로운 朝代가 출현하는 수직 관계로 비춰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論語》와 《孟子》등에 보이는 기록이다.[2]

그러나 최근 고고학 및 문화인류학자들의 이 방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종전의 문헌 사학에 비춰진 三代의 관계에 대해 본질적인 궤도 수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로 張光直씨를 들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 「新舊文字의 사료로 볼 때 夏·商과 商·周는 시기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다시말해 商은 夏의 열국 가운데 하나였으며, 周는 商의 열국 가운데 하나였다. …… 夏·商·周 三代의 관계는 前覆後繼, 즉 앞의 왕조가 멸망하고 난 후 이를 계승하여 출현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선상에 존재하는 열국 관계였다는 것이다.」[3]

1) 「三代」란 호칭은 《論語·衛靈公》의 「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 및 《孟子·滕文公上》의 「三代共之.」라고 하는 말에 보이는데 문헌상에 최초로 등장하는 말인 것 같다.

2) 《論語·爲政》에 「殷因於夏禮, 所損益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可知也.」라 하는 말과 《孟子·公孫丑》에 「夏后殷周之盛, 地未有過千里者也.」라 한 것을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전자는 三代 관계를 수직적 계승관계, 후자는 문화의 고립적 발전 관계로 보고 있다.

3) 「從夏商周三代考古論三代關係與中國古代國家的形成」 (《中國青銅時代》, 臺灣, 聯經出版公司, 民國72年), p.35.

현재 학계에서는 이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간단히 말해 三代의 관계는 시간표상의 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횡적인 관계로 부족장들의 교체에 의한 상호 충격과 자극을 주며 발전해 나갔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설이 제기되고 난 후 중국의 학계에서는 국가의 출현 시기마저 종전의 商代에서 夏代로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4]

그 분위기는 처음 서양의 신진화론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5] 그런데 중국의 역사 발전은 서양과는 달리 혈연이라는 끈끈한 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서양사에서 말하는「국가」[6] 개념이 중국사에서도 적용 가능할런지는 의문시된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학계의 논란도 분분한 실정이다. 나중에는 마치 절충이라도 하듯 「亞細亞式의 國家」(Asiatic State)라는 색다른 이론까지 제기하면서 주장을 합리화시키려는 경향도 있다.[7] 이에 맞서 중국 대륙의 학자들은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하여 三代를「奴隸制社會」[8]로 보고 있다.

물론 관점이 다르면 그에 따른 결론도 다르기 마련이다. 三代를 부족장들의 교체에 따른 수평적 관계로 보았을 때, 그 시기에 출현하는 통치자 및 계급 의식, 실용적 가치의 여러가지 예술품, 종교 의식의 건물, 공예품, 전쟁 포로 및 문자 사용의 흔적들은 엄격한 의미의 「국가」개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역사는 이미 문명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

4) 許倬雲,「由新石器時代到商代」(《西周史》, 臺北, 聯經出版事業公社, 民國73年 10月初版), pp. 1～32 및 張光直, 앞의 글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5) 앞의 張光直씨의 글, p. 59 〈도표〉에 의하면 고고학상의 신석기와 중석기시대를 新進化論에서는 Bands (遊團) Society, 仰韶文化時期를 Tribes(部落)〃, 龍山文化時期는 chiefdoms(酋邦)〃, 그리고 三代 이후를 States(國家) 단계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 대륙의 학계에서는 신석기～용산문화단계를 原始社會, 三代를 奴隸社會, 晩周(戰國 이후)를 封建社會로 보고 있다. 신진화론의 이론은 Elman R. Service의 《國家와 文明의 起源》(*Origins of the State and Civilization*, New York, W. W. Norton, 1975)에서 처음 제기되어 William T. Sanders와 Barbara J. Price에 의해 발전되었다. 후자의 이론은 《文明의 發展》(*The Evolution of a Civilization*, New York, Randon House, 1968), pp. 41～45에 상세하다.

6) Kent V. Flannery는 「國家」의 개념을 첫째, 직업적 통치계급 의식을 구비한 고도의 중앙 집권적 정부 수립, 둘째 혈연이나 혼인관계를 떠난 직업적 분화 관계의 유지, 셋째 엄격한 법률을 토대로 반국가적 행위를 엄히 처단 할 수 있는 위력의 구비, 넷째 수시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고 조세 징수 및 공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The Cultural Evolution of Civilization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3, 1972, pp. 403～4).

7) Jonathan Friedman, 「Tribes, States, and transformations」, *Marxist analysis and social anthropology*. ed. by M. Block (London, Malaby Press, 1975), p. 195.

8) 郭沫若, 《奴隸制時代》 (人民出版社, 1954年), pp. 14～75를 대표로 들 수 있다. 范文瀾씨는 夏殷時代를 奴隸制社會, 周代를 封建社會의 개막으로 보고 있다(《中國通史簡編》修訂本 第一編, 人民出版社, 1964年 8月), pp. 101～156.

교육도 문명 사회로의 발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문명 발전은 교육 정도에 따라 수준이나 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관료제 및 계급제에 의한 국가 조직의 형성, 문자의 출현 등을 교육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 한다면, 반대로 교육의 발전은 문명화 단계를 앞 당기는데에 절대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중국 역사의 문명 개막 시기를 殷商 이후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고고학의 성과에 힘입어 늦어도 夏代 말기부터 중국은 이미 문명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9]

본고는 三代를 문명 사회로 규정하여 문명 사회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출현 및 그의 실시 상황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 한다. 지금까지 三代 교육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周代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이전의 夏·商 兩代에 대해서는 기록의 미비, 그리고 전하는 사료가 있다 하더라도 전설이나 신화의 색채가 농후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언급을 회피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본고에서는 문헌상의 기록과 최근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대조하면서 夏·商 양대의 교육 발전에 관한 것을 살펴보겠다. 가급적이면 국가 조직 및 통치권의 형성이란 측면에 관심을 두어 교육과 정치와의 관계에 관한 것을 살펴보겠다. 많은 叱正을 바란다.

Ⅱ. 「敎」·「育」의 시대적 의미

— 「敎」에서「育」으로의 발전 —

「敎育」이란 무엇인가? 왜 敎育을 실시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敎育」은 「가르치다(敎)」와 「길러내다(育)」의 각기 다른 의미가 하나로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시대와 목적 여하에 따라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 어떤 학자는 교육을 목적과 무목적, 자연과 인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10]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다.

9) 앞의 許倬雲씨 및 張光直씨의 글을 대표로 들 수 있다.

10) E. H. Wilds는 《현대 교육의 기초》(*Foundation of Modern Education*, Washington D.C., Farrar and Rinehalt, 1944, pp.18~32)에서 원시시대의 교육은 목적성이나 의식이 없는 모방의 교육이라 하였다.

먼저 교육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교육 출현의 시기에 관한 것부터 살펴보겠다. 지금까지 이에 관해서는 진화론, 심리학, 그리고 유물사관적 입장 등에서 주장한 이론들이 대단히 많은데,[11] 그 가운데 「교육은 그 시대인들이 처한 시대적, 환경적 실제 생활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사회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편리를 도모하는 수단이다」[12]라고 말한 어느 교육사가의 말은 교육 출현의 기원을 추론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교육의 출현과 지구상에 인류의 출현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면서부터 이루어진 환경에 대한 적응 내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자체가 곧 교육의 시발점이요, 나아가 교육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의 노력 가운데에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적 경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사의 연구는 그 역사의 발전 과정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말해 지구상에 인류의 출현이 곧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들에 의해 진행된 교육 역시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인류의 생활사는 달리 교육사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며, 이는 역사의 발전 과정 속에서 찾을려고 할 때 그 진정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중국 고고학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중국 경내 인류의 출현은 지금으로부터 약 170만년전 更新世時代의 「元謀人」→「藍田人」(약 110만년전)→「北京人」(약 50만년전)으로 계보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猿人」으로 고고학상의 시대 편년으로는 구석기 초에 상당한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 활동은 타제석기를 이용한 어렵 및 채집 경제가 주류였다. 그 후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렵과 채집 경제 활동은 다양해졌다. 석기 또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복잡, 정교해졌으며 뇌용량도 많아져 猿人은 점차 「智慧人」으로 발전해 갔는데, 이러한 인류의 발전 과정 속에서 당시 교육의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청동기 시대 「국가」라는 개념이 출현하기 이전의 원시 教育은 「教」와 「育」을 구분하여 생각하고 싶다.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教育은 청동기시대 이후 국가 개념이 출현한 후 전제 왕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교육장소(學校)에서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을 지칭하는 것이다. 때문에 교육이란

11) 毛禮鋭 · 沈灌群主編, 《中國教育通史》(山東教育出版社, 1985年 4月初版), pp. 2~3에 상세하다.
12) 《楊賢江教育文集》(教育科學出版社, 1982年), p. 413.

단어에는 대부분 「학교」라는 수식어는 따라다니는 것이다. 중국 교육사의 발전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문헌 기재에 의하면 「敎」와「育」은 엄격히 분리되어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敎育」이 하나의 합성어가 되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춘추전국시대 유가들의 교육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중국 古代漢語에서 「敎」는 「가르친다」의 의미보다 「본받는다, 따른다, 모방한다」의 의미에 가까운「效」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漢書·儒林傳》에 실려있는 漢初 太常博士 孔藏 등의 의론 과정에서 말한 「聞三代之道, 鄕里有敎」에 대해 師古는 「敎, 效也」라 注하고 있다. 언제부터 「敎」가 일방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르치거나 전수하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초적인 뜻은 「본받는다」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원시시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전설로 내려오는 三皇五帝時期 「宓(伏)羲氏之世, 天下多獸, 故敎民以獵」,「燧人之世, 天下多水, 故敎民以漁」[13] 및 「古之人民皆食禽獸肉. 至于神農, 人民衆多, 禽獸不足, 于是神農因天之時, 分地之利, 敎民農耕, ……」[14], 「包羲氏沒,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敎天下」[15], 「后稷敎民稼穡, 樹藝五穀」[16] 등에서 말하는 「敎」는 「가르치다」의 의미보다 「본받도록 하였다」는 의미가 해석에 적합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현대 교육학에서 말하는 원시 교육의 특징인 「무의식적인 모방(unconscious imitation)」으로 보아도 가능할 것 같다.

위 기사의 내용은 대략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 혁명」이후의 원시사회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지하듯이 당시의 사회는 계급이 출현하기 이전의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그 본받는 내용은 공존공생에 입각하여 환경에 대한 적응과 이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인류 최초의 혁명으로 불리우는 신석기 혁명은 이전의 환경 적응 단계에서 벗어나 자연을 적극 개발하고 이용하려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위 기사에 보이는

13) 《尸子·卷上》.
14) 《白虎通·卷一》.
15) 《易經·系辭》.
16) 《孟子·滕文公上》.

「神農氏의 농경법」, 「包羲氏의 보습과 쟁기 만드는 법」, 「后稷時代 오곡 파종 및 이를 다스리는 방법」의 출현은 종전 「宓(伏)羲氏의 수렵」, 「燧人氏의 捕漁」가르침에 비해 환경 타개나 자연의 이용 및 개발이란 측면에서 보다 적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때에도 그 가르침(=모방)의 대상은 구성원 전체였고 인위적인 것 또한 아니었다.

그러나 신석기시대를 지나 청동기시대로 진입하면서 「教」의 의미는 크게 달라졌다. 청동기 시대의 특징인 계급 사회 및 관료제의 출현, 사회 분업화의 가속, 문자의 사용 등은 종전의 원시 사회 형태에 대해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계층을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인의 양성이 요구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출현한 교육 기구가 바로 「學」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국 문헌에 보이는 교육 장소 「庠」·「序」·「學」·「校」 가운데 「學」은 특별히 귀족자제를 상징하는 아들 「子」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훗날 太學, 國子學, 四門學 등 중국 전통 교육 기구에 「學」을 공통으로 붙여 불렀던 것도 바로 집권 귀족계층의 자제들만이 다닐 수 있는 교육 장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동기시대를 맞이하면서 종전 전 부족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은 점차 특권 계층을 겨냥한 교육으로 변질되었으며, 이 때에 이르러 문자의 출현은 문자를 통한 교육 및 지식 계급의 출현까지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 분화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교육이 점차 지배 계층의 형성을 겨냥하고 이의 육성을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청동기 문화가 절정기에 달한 周代의 「王官學」[17]의 출현이 이러한 사실을 대표하는 중국 고대 교육의 완성 내지는 전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계기는 국가 체제가 형성되는 夏末, 늦어도 商代 初期의 교육 제도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교육의 방식도 종전의 「教」에서 이제는 통치권의 강화 및 그의 안정이라는 목적하에 이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育」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育」은 《說文解字》에 의하면 「養子使作善也」라 하여 「자제를 양육함에 그들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그 「子」는 일반 자제들을 의미하

17) 이 명칭은 錢穆씨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춘추 전국시대의 百家學(평민의 학문)에 상대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氏著, 《國史大綱》(臺灣國立編譯館, 民國66年修訂3版), p.68 참조.

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귀족 자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溥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18]의 王土·王臣 관념하에 있어 이는 제국의 통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자제를 두고 하는 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의 사회는 이미 계급적 성격이 강하고 더구나 귀족 계층에 의해 주도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특별히 귀족 자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가능할 것 같다. 따라서 전제 왕권의 형성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출현한 「學」은 이러한 귀족의 자제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장소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통해 통치자는 교육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농단하면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 제국 통치의 첨병으로 기용하는 분위기까지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제 국가의 출현 및 그의 발전에도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다보니 중국 교육사의 전개 과정은 처음부터 정치에 강하게 예속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중국 사서에 보이는「教育」이란 단어는 「教誨」과 「培育」, 즉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와 「길러낸다」는 두가지 의미로 각각 달리 쓰이는 말이었는데, 국가가 출현하고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를 하나의 의미, 즉 「통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의미로 통합되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시기는 대략 商代 전제 왕권의 분위기가 마련된 이후로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에서 교육을 장악하였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첫째, 일정한 교육 장소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국가에서 제정한 교육 장정(입학에서 졸업, 졸업 후의 출로 등), 셋째 교사의 임명, 넷째 문자 사용 및 국가에서 제정한 교재가 마련돼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이 정확히 언제부터 갖추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商代에 이미 이에 걸맞는 상황은 전개되고 있었다.[19] 그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學」의 출현인 것이다.

춘추전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상에서 말한 「教育」의 의미가 점차 도전을 받기 시

18) 《詩經·小雅》.

19) 高明士씨의 경우 漢武帝 元朔 5年(B.C.124년)의 太學 교육의 출현을 시초로 보고 있는데, 만일 관료제의 확립 및 유교주의 교육이란 명제가 붙었을 때는 합당한 고찰이라 여겨지지만 이상의 조건에서 볼 때는 꼭 漢代까지 기다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氏著, 《唐代東亞教育圈的 形成》, 臺灣國立編譯館, 民國73年 1月), pp.80~84.

작하였던 것 같다.《孟子》는 「君子三樂」을 얘기하면서 「천하의 영재를 얻어 敎育시키는 것이 君子의 세번째 즐거움」[20]이라 하였다. 문헌상에 등장하는 「敎育」은 이가 최초의 사례일 것이다. 그런데 영재를 길러낸다는 자체보다는 그러한 인재를 불러들여 유가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즉 「君子」를 양성해 낸다고 하는 것은 관료화보다는 인간화 교육을 지향하는 유가 교육의 모습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달리 전제 왕권 확립에 대한 반항 내지는 정치로부터 교육의 독립을 제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제후들의 패권 쟁탈은 가속화되었고 천하통일의 이론적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가사상은 법가에 비해 열세하였으므로 孔·孟으로 이어지는 유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들의 교육이념은 통치자의 仁政이나 德政을 부르짖는 유세로만 그치고 말았다.[21] 단, 이 시기 유가들의 노력에 의해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학문(귀족들의 禮)이 민간으로 이행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법가 사상에 의해 최초로 통일 제국의 위업을 달성한 秦은 「官師合一」의 원칙에 따라 교육을 정치의 종속시켰고, 焚書坑儒 및 私學의 탄압 등을 통해 유가를 억압하면서 사상을 고정화시켰다. 이러한 분위는 漢代로까지 이어져 漢武帝는 집권 후 초기 黃老思想의 지배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獨尊儒術」의 통일된 사상에 기초하여 元朔5年(B.C.124년)에 가서는 중국 최초의 학교라 할 수 있는 「太學」을 설치하는 등 유가 교육의 진흥책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그 교육 형태는 단지 유가의 외투로 변장한 것일 뿐 교육 정책 및 그 이념은 전제 왕권 강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시말해 교육은 정치에 더욱 예속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전통 학교교육의 모습이다. 이 때부터 교육 장소는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내기 위한 「관리 양성소」로 고정되었고, 여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희망 역시 졸업 후 전제 왕권 강화의 디딤돌이 되는 관료로서의 진출이 전부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서「儒林傳」에 반영된 개인들의 교육 업적도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교육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敎育」은 전제 왕권 강화의 수단이요, 도구에 불

20) 「得天下英才而敎育之, 三樂也.」(《盡心章上》).

21) 춘추 전국 및 孔·孟의 교육사상에 대해서는 多賀秋五郎,「古代中國敎育史構成の諸問題」(《古代アジア敎育史研究》, 日本學術振興會刊, 昭和25年), pp.219~253 및 毛禮銳·沈灌群主編, 앞의 책, pp.143~395 등에 상세하다.

과한 것이며 통치자는 이를 통해 집권 제국의 통치 안정과 수명 연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면은 진·한 시대 전제 왕권이 출현한 후 시행되었던 여러가지 교육 사업 및 시험 제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唐代 「東亞敎育圈」이 형성된 이후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월남 등 동아시아 세계의 전통 교육 제도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다.[22]

따라서 필자는 三皇五帝로부터 한무제 원삭 5년(B.C. 124년) 학교 교육(이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었으므로 官學이라 부른다. 이하 같음)이 처음 출현하기까지의 중국 교육사 발전 과정을 「敎」(전설시대 및 夏末 이전)에서 「育」(하말~상대), 그리고 周代 이후 「敎育」으로의 발전으로 구분하고 싶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三皇五帝時期의 「敎」에서 周 이후 「敎育」으로 변질되기까지는 周代 봉건정치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夏·商 兩代가 그 관건시기로 볼 수 있는데, 周代 이후(춘추전국시대 포함)의 교육 상황에 대해서는 《禮記》등 여러 문헌에 상세히 전하고 있고, 학자들의 논급 또한 대단히 많기 때문에[23]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미진하였던 夏·商代의 교육 상황에 관한 것을 문헌상의 기록과 최근 고고학의 성과를 대조하면서 살펴보겠다.

이 시대를 서술의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최근 괄목할만한 이 시대의 고고학의 성과와 더불어 교육 사업의 출현도 「國家」개념의 출현 시기와 맞물리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가설 때문이다. 과거 대만의 敎育史家 高明士씨는 학교 교육의 출현 조건으로 관료제의 확립, 문자의 출현, 유교주의 통치 이념의 확립, 군주의 교육 사업에 대한 열의 정도 등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24] 그래서 한무제 원삭 5년(B.C. 124년)을 중국 학교 교육의 출현 원년으로 보고 있다. 이는 「官學」의 출현 조건에는 가능한 얘기일런지 모르나 이상에서 말한 「敎育」이라는 개념을 놓고 얘기한다면 그 시기는 더욱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22) 漢代 이후 중국의 교육과 정치권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高明士씨가 상세히 언급한 바 있다. 「漢唐間學校敎育發展的特質」 (《唐代東亞敎育圈的形成》, 臺灣, 國立編譯館中華叢書編審委員會, 民國73年), pp. 67~245.

23) 대표적인 저서로는 앞의 多賀秋五郎씨의 《古代アジア敎育史研究》 및 앞의 毛禮銳씨 등이 主編한 《中國敎育通史》등을 들 수 있다.

24) 앞의 책, pp. 80~83.

Ⅲ. 夏代의 敎育 및 그 성격

1. 夏代 교육의 존재 여부

전설에 의하면 夏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전(B.C.21세기) 堯舜時代 중국 치수 사업의 상징적 인물로 칭송되는 禹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禹는 부락연맹 시대「崇伯」으로 봉해진 「곤」의 아들로 부친의 치수 실패를 거울삼아 물을 大河로 흘러보내는 방법을 채택한 결과 황하 연안을 홍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옥토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25] 이로 인해 자신은 「大禹」로 칭송되었고 나아가 부락 대표들의 추천을 얻어 요순시대 讓位 전통인 「禪讓」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었다.

그는 천하에 군림하고 난 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각지를 순행하면서 주변 부족을 통합하였고, 숙적관계였던 「三苗族」등을 토벌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심지어 禪讓制를 맘대로 농락하여 자신의 아들 「啓」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등 부자세습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당시 「大禹傳子」의 부자상속 과정에 있어 「伯益」으로 대표되는 동방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다. 《古本竹書本紀》에 전하는 「益于啓位, 啓殺之」의 내용 및 《甘誓》, 그리고 전국시대 屈原의 작품 《天問》등에 비친 당시의 상황은 유혈 투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결국 「有扈氏」의 정벌을 끝으로 반대 세력의 숙청 작업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고, 즉위 10년째 되는 해에 가서는 사방의 제후를 불러 대향연을 베풀고 朝賀까지 받음으로써,[26] 주변 제후들의 승인하에 천하에 군림한 최초의 군주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서에는 하왕조의 건국기년을 아들 啓가 즉위한 때부터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과 색다른 통치의 전제성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夏 왕조의 존립 연대에 대해서는 사서마다 출입이 많다.[27] 학계에서는 禹王으로부터 商湯王에게 멸망한 履癸(桀)에 이르기까지 17대 약 500년간(B.C.21세기 ~ B.C.16세기)으로 보고 있다.[28] 그러나 아직은 문자 사용의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고고학의 편년으로는 先史時代로 이해되고 있다.

25) 《國語 · 周語下》.
26) 《墨子 · 非樂》.
27) 상세한 설명은 冬柱臣, 「夏代和夏文化問題」, (《河南文博通訊》, 1979年 第2期), pp.15~16 참고.

과거 夏代에 관한 내용은 전설이나 신화적 색채가 너무 많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 추세였다. 심지어 《史記·夏本紀》의 기록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을려는 경향도 있었다. 그런데 1959년 河南省 偃師縣 二里頭에서 대형 궁전 유적(이하 「二里頭」유적이라 간칭)이 발굴되면서부터 夏代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결과 오늘날에 와서는 夏는 실존시대이며 중국 정통왕조의 개막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29] 어떤 학자는 夏代 말기부터 중국은 이미 청동기 문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나아가 국가 형태까지 구비해 놓았다는 설을 주장하면서 종래 殷商時代의 국가 출현설을 앞당기고 있다.[30] 하지만 아직은 夏代에 문자 사용의 흔적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비관의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 시기는 대략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 기구의 출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교육과 문자 출현과의 관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殷商 이전에는 문자 사용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갑골문이 출현한 殷商 이후를 중국 교육사의 기점으로 삼고 있다.[31] 그러나 최근 중국 경내에서 꾸준히 발굴되고 있는 고고학의 성과는 중국의 국가 기원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인재 양성 기구의 출현 시기를 소급해 주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강력한 왕권의 출현이다. 「二里頭」유적에서 발굴된 대형 궁전 유적 및 여러가지 무늬나 도안이 새겨진 청동 유물은 당시 거대한 권력의 출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二里頭」유적 제3기 이후에서 발견되고 있는 청동기 문화의 성격은 商代 초기의 청동기 문화 특징과 일치하고 있는 점,[32] 또한 이 방면에 유력한 방증 자료가 되어주고 있다.

둘째, 殷商時代 출현하는 갑골문을 중국 문자의 기원으로 본다면 그 문자 형성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도형 및 무늬, 상형문자 등은 夏代의 金文이나 石刻文字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다.[33]

28) 《漢書·律曆志》에 《帝系》를 인용하여「天下號曰夏侯氏, 繼世十七王, 四百三十二歲」라 하였다.
29) 徐旭生,「1959年豫西調查"夏墟"的初步報告」,《考古》, 1959年 第11期.
30) 冬柱臣, 「從二里頭類型文化試談中國的國家起源問題」(《文物》, 第6期, 1975年), pp.29~33 : 一, 「夏代和夏文化問題」(《河南文博通訊》, 1979年第2期), p.13.
31) 대표적인 것으로 일본학자 多賀秋五郎, 「古代アジアにおける教育機關の成立とその形態」(《古代アジア教育史研究》, 東京, 日本學術振興會刊, 昭和25年, pp.4~56)을 들 수 있다.
32) 楊育彬, 「談談夏代文化的問題」(《河南文博通訊》, 1980年第4期), pp.37~38.
33) 唐蘭, 〈關于商代社會性質的檢討〉(《歷史研究》 第1期, 1958年) ; 汪寧生, 〈從原始記事到文字發明〉(《考古學報》 第1期, 1983年, pp.23~25)에 상세하다.

만일 이 두가지 사항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면 夏代 말기에 초보적이나마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형태는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국가 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 기구의 출현에 대해서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 보이는 사서의 기록은 夏代 원시 교육의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夏代 교육 기구 및 성격

현재 전하는 문헌 가운데 夏代 교육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孟子·滕文公上》에서는 夏·商·周 三代 인륜 교육의 실시를 강조하면서「設爲庠·序·學·校, 以敎之. 庠者, 養也. 校者, 敎也. 序者, 射也. 夏曰校, 殷曰庠, 周曰序」라 하여 夏代부터 「校」나 「學」등의 교육 기구를 설치, 인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방증해 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여러군데 보인다.

②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인을 공경하는 養老禮의 실시이다. 이에 대해서는《禮記·王制篇》에 「凡養老, 有虞氏以燕禮, 夏后氏[34]以饗禮, 殷人以食禮, 周人脩而兼用之. 五十養于鄕, 六十養于國, 七十養于學. …有虞氏養國老於上庠, 養庶老於下庠; 夏后氏養國老於東序, 養庶老於西序; 殷人養國老於右學, 養庶老於左學; 周人養國老于東膠, 養庶老於虞庠, 虞庠在國之西郊」라 하여 三代에 그 禮가 庠·序·學 등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養老禮는 노인을 공경하는 씨족 사회의 유풍으로 원시시대의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5] 이상의 기재에 의하면 夏代에는 이를 「國老」와 「庶老」로 구분하여 國老는 「東序」에서 庶老는 「西序」에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漢代 鄭玄은 「東序大學也, 西序小學也」라 하여 東序는 大學, 西序는 小學이라 주석해 놓고 있다. 당시에 「東序(大學)」와 「西序(小學)」, 그리고 國老와 庶老의 구분[36]이 엄격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교육과 관련된 예의를 계급에 차등까지 두어

34) 夏의 선민 명칭은「崇(伯)」이었다. 여기에 말하는「夏后氏」는 夏왕조의 정식 명칭이요, 중국 최초의 왕조 명칭이다. 이때부터 중국의 역사는 노예제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설이 현재 중국의 학계에서는 지배적이다. 金景芳, 「中國奴隸社會史」(上海人民出版社, 1983年 7月), pp.26~38.

35) 그 발전 형태에 관해서는 《禮記·王制篇》에 상세하다.

36) 《禮記·王制篇》에서 鄭玄은 國老는 「有德有位者」, 庶老는 「有德無位者」라 주석하였다.

실시하고 있는 점은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③ 한무제 때 公孫弘과 太常博士 臧平 등은 三代의 학교에 대해 언급하면서 「聞三代之道, 鄕里有敎; 夏曰校, 殷曰庠, 周曰序.」[37]라 하여 당시 지방에까지 교육이 보편화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④ 《說文解字》에서는 「庠」을 풀이하면서 「禮官養老, 夏曰校, 殷曰庠, 周曰序」라 하였다.

이상의 사료에 따르면 夏代의 교육기구는 「校」와 「序(東·西 구분이 있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4가지 사료는 대부분 漢代 이후 유가의 수중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夏代 교육의 실체를 밝혀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유가교육의 정수라 할 수 있는 禮化敎育의 내력을 강조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 기구의 명칭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禮化 敎育의 실시 연원을 반드시 夏代로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모종의 교육은 분명히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교육을 실시한 장소는 어디였으며, 이를 실시한 목적은 또한 무엇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위 사서에서 말하는 夏代 교육기구의 「校」와 「東序」 및 「西序」의 실체, 그리고 「養老禮」에 관한 것을 살펴봐야 한다.

《孟子》에서는 「校」를 「敎也」라 하여 이는 분명히 교육 장소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說文解字」에 의하면 「校」는 「木」에 「交」를 합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古代 漢語에서 「校」는 「敎」와 같은 의미로 군대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38] 이를테면 《周禮·夏官》에 「六廐成校」나 後漢 劉熙가 撰한 《釋名·釋名類》에 「校, 號也. 將帥號令之所在也」의 「校」역시 군대와 관련된 의미이다. 지금도 「校」는 교육기관인 「學校」를 지칭하는 것 외에 「大校, 上校, 中校, 少校」등 군대 계급을 지칭하는 단어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夏代의 「校」는 군사 훈련과 관계된 장소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훈련하는 곳일까?

먼저 「校」의 출현시기부터 살펴보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만일 국가 형태가 갖추어지는 시기, 즉 夏代 후기에 이르러 출현한 것이라면 이 때부터 인근 부족을 정벌하는 일 또한 빈번하였으므로 국가에서는 일정한 군대 조직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훈련의 대상이 전부족이든 아니면 특정집단이든지 간에 이들을 집결하도록

37) 《史記·儒林傳序》.
38) 毛禮銳等 主編, 앞의 책, p. 40.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력과 통제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 권력에 의해 징발당한 인원을 군사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가 바로 「校」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釋名·釋名類》에 「校, 號也, 將帥號令之所在也」라 하는 내용과 고대에 「養馬官」을 「校人」이라 불렀던 점에 착안한다면.[39] 여기에서는 주로 전술 및 기동력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길들이는 법을 가르쳤던 것 같다.

한편, 《漢書》 師古의 주석에서는 한무제 때 公孫弘 등이 말한 「校」를 「效也. 言可效道藝也.」라 하여 무술 위주의 교육 장소라기 보다는 《孟子》의 주장에 가까운 인륜 교육의 장소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무술 외에 道藝敎育까지 겸행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序」는 《說文解字》등 문자학의 표현을 빌린다면 「넓은 광장에서 사람이 활을 쏘는 형태」[40]로 풀이하고 있다. 《孟子》에서는 「序者, 射也」(滕文公上)라 하였고, 《文獻通考·學校考》에서는 「以習射事曰序」라 하여 활쏘는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다. 《國語·楚語》에서도 「先王之爲臺榭也, 榭不過講軍實」이라 하는 말이 보인다. 학자들 가운데에도 위 《禮記·王制篇》에서 말한 東·西序는 《爾雅·釋官篇》에서 말하는 「無室之榭」의 「榭」와 같은 것으로 「臺榭」, 즉 講武하는 곳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를 東·序를 구분해 놓았을까? 그 구분의 기준은 또한 무엇인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위 《禮記·王制篇》에서 말하는 「夏后氏養國老於東序, 養庶老於西序」의 養老禮와 결부시켜 이해한다면 그 의문은 다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들 두 개의 序는 모두 중앙에 설치한 것으로, 여기에서 養老禮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養老禮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씨족 사회에서부터 전해오는 노인 공경의 유형적 표현이다. 당시 노인을 특별히 존대, 공경했던 이유는 國事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를 관장할 수 있는 인재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들의 경험은 곧 치국의 要本이었기 때문이다.[41] 현명했던 舜 임금도 중요한 일은 모두 나이 많은 「四岳」을 찾아 문의했다는 기록이 있다.[42]

39) 《荀子·哀公篇》楊倞의 注에 보임.
40) 毛禮銳等 主編, 앞의 책, p. 59.
41) 王雲五主編, 陳東原著, 《中國古代敎育》(商務印書館, 民國20年 初版), p. 31.
42) 《尚書·堯典》.

둘째, 《禮記·王制篇》에서는 養老의 대상을 「國老」와 「庶老」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漢代 鄭玄은 「凡有德有位者曰國老, 有德無位者曰庶老」라 하여 「位」의 유무 여하에 따른 구분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 「位」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唐代 孔穎達은 「國老」를 「國之卿大夫士之致仕者也」라 疏하여 국가의 관리를 총칭하는 말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의 사회가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한 계급 사회였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官府의 발달이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孔穎達의 疏처럼 卿·大夫·士의 구분이 엄격히 갖추어져 있었는지는 의문시 된다. 특히 士 계층은 빨라야 춘추시기에 이르러 형성되었다.[43] 이러한 해석은 엄격히 말하자면 周代 이후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연원은 따지자면 夏代, 특히 그 말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대 말기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급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國老는 국정 전반에 걸친 사항을 자문하는 원로 기구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夏代 말기 이들을 養老했다는 東序는 庶老를 養老하는 西序에 비해 계급상 우위를 점하는 교육 기구였다는 얘기도 되는데, 이처럼 교육 기구의 구분은 계급 사회의 발전을 조장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을 것이다.

漢代 鄭玄은 東序는 大學, 西序는 小學이라 주석하였다. 당시 구분이 그렇게 엄격하였는지는 의문시되지만, 하나의 교육 장소 (序)를 동·서로 양분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 내용이나 대상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앞에 언급한 「校」와 마찬가지로 군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을 것이다. 앞서 말한 「校」의 교육과 비교해 말한다면 여기에서는 주로 활쏘기 훈련을 중심으로 養老禮까지 실시함으로써 경노 사상을 고취하고 나아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토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文獻通考·學校考》에 「夏侯氏以射造士」의 의미속에는 이러한 사실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국가 형성 및 계급의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화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위에 열거한 夏代 교육에 관련된 사료를 보면 당시의 교육은 계급상의 차별은 있지

43) 余英時, 《中國知識階層史論》 古代篇(臺灣, 聯經出版社, 民國69年初版), p.36.

만 전 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공간 역시 넓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행히 이를 뒷받침해 줄만한 것으로 1959년 「二里頭」유적 제3기층에서 대형 궁전 건물 유적이 발굴된 바 있는데,[44] 학계에서는 이를 夏代 권력 상징의 궁전 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45] 그 궁전은 길이 백여미터, 면적 만여평방미터에 흙을 다져 만든 기단위에 堂·廊·庭·院·門 등 각종 단위 건물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 있다. 어떤 학자는 堂은 곧 이들 단위 건물의 중심으로 훗날 明堂의 성질에 해당하는 종묘 건물로 이해하고 있다.[46] 그렇다면 이러한 궁전 유적은 언제 축조된 것인가? 우선 건물의 웅장함으로 보아 당시 강력한 권력에 의한 인력 동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문헌에는 夏初부터 궁실을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世本·作篇》에 「禹作宮室」의 사실이 전하고 있고, 《淮南子·氾論訓》에는 옛날 성인들은 「爲之築土構木, 以爲宮室」했다는 기록, 그리고 《古本竹書紀年》에는 「桀築傾(필자주 : 최고의)宮, 飾瑤臺(필자주 : 훌륭한 궁전)」등의 기록이 보이는데, 문장의 의미로 볼 때 위 궁실 유적은 桀王의 사실에 가깝다. 고고학자들 역시 그 궁전 유적이 발굴된 제3기 유적층은 대부분 夏代 중반 이후의 사실과 관계된 것임으로 위 《古本竹書紀年》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堂 앞에는 약 4·5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평탄한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전 씨족공동체시대 전 씨족의 중심 무대로 여기는 半坡 유적의 광장과 같은 위치에 설계되어 있다.[47]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학계에서는 夏代 말기에 이르러 초기 청동기 시대로 진입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48] 사서에서도 이 때를 즈음하여 주변민족에 대한 정복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씨족의 공동체를 강화, 확인할 수 있는 집회는 빈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전당 앞에 조성된 광장은 당시 씨족들의 집회 등 모든 활동을 망라하는 종합 성격의 장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44) 「河南偃師二里頭早商宮殿遺址發掘簡報」(《考古》 第4期, 1974年)에 상세하다.
45) 王克林, 「從龍山文化的建築技術探索夏文化」(《山西大學學報》, 第4期, 1980年, p. 32.
46) 郭齊家·喬衛平共著, 《中國遠古及三代教育史》, 人民出版社, 1994年 1月, p. 43.
47) 그리고 《尚書·盤庚篇》에 「王命衆, 悉至于"庭"」라는 내용이 전하고 있으며, 같은 책《顧命篇》에도 「出綴衣于"庭"」이라는 말이 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庭"은 대략 하대의 대형집회광장을 지칭하는 것 같다.
48) 李學勤, 「重新古价中國古代文明」(『先秦史論集』, 1982年), p. 34.

東·西 두개의 「序」및 「校」는 위에 제시한 사료의 내용으로 보아 독립적인 건물이라기 보다는 전체 구성원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에 건립한 종합 성격의 건물일 것 같다. 淸代 金鶚은 「東序」는 「世室 동문 밖에 건립되어 있다」[49]고 고증한 바 있다. 惠棟은 「東序는 辟雍, 靈臺, 靈囿와 마찬가지로 明堂의 동·서·남·북문 밖에 있었으므로 모두 明堂이란 이름을 덧붙여 부르는 것이라 하였다」.[50] 「世室」은 「明堂」을 달리 지칭하는 말이다. 이를 夏代에는 「大室」, 殷人들은 「重室」이라 불렀다. 건물 자체가 웅장하고 또한 권위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大」 혹은 「重」字를 붙여 불렀던 것 같다. 따라서 당시 序의 東·西 구분은 明堂이 기준점이 되었을 것이다.

明堂」의 성격은 무엇인가? 金鶚은 이를 「大敎之宮」[51]이라 하여 교육 성질의 장소임을 암시해 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이 여러군데 보인다.

① 「明堂者, 明天地之堂也, 所以順四時, 行月令, 宗祀先王, 祭五帝」(《藝文類聚·禮部上·明堂條》에 《三輔黃圖》의 글을 인용한 것에 보임)

② 「明堂者, 天子布政之宮.」(《孝經援神契》)

③ 「明堂爲天子太廟·俎祭·宗祀·耕借·養老·尊賢·饗射·獻捕虜·治曆·望氣·告朔·行政, 皆行于其中, 故爲大敎之宮.」(惠棟 《明堂大道錄》卷一)

④ 「明堂所以通神靈, 感天地, 正四時, 出敎化, 崇有德, 章有道也.」(《禮含文嘉》)

⑤ 「皇帝立明堂之儀, 舜有告差之旌, 湯有總街之匡, 武王有靈臺之候.」(《宮子》)

이상의 사료를 종합해 보면 明堂은 황제시대 때부터 출현한 것으로 정령 반포, 조상신에 대한 제사, 일기 관측, 교화, 출정시 결의 및 승리 후 만찬, 양노례 실시 등 정치·종교·문화·교육 활동 등 전부족의 모든 활동을 관장하는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광장과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한 「二里頭」유적의 대형 궁전 및 광장은 문헌에서 말하는 하대 말기 桀王 때 축조된 것으로 보아 큰 실수는 없을 것이다.[52] 그리고 東·西序의 교육은 明堂의 직능 속에 포함된 국가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49) 《求古錄禮說》, 卷二 「明堂考」.

50) 《明堂大道錄·明堂靈臺》.

51) 《求古錄禮說·明堂考》.

52) 陳旭, 「關于夏文化問題的一点認識」(《鄭州大學學報》第3期, 1980年) 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夏代 교육과 관련된 문헌상의 내용은 고증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더구나 이에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漢代 이후 유가들의 수중에 의해 나온 것이라 받아들이기에 곤란한 점도 많지만, 전부족을 대상으로 무술 및 養老禮를 실시하면서 국가 체제 및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Ⅳ. 商代[53]의 교육 및 그 성격

전설에 의하면 商은 五帝 가운데 하나인 帝嚳의 후예 契로 전하고 있다. 그로부터 14대 약 400년이 지난 기원전 17·8세기경 大乙(湯)에 이르러 亳(지금의 山東省 曹縣 薄城)에 정착하면서 商은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夏族과 맹주권 쟁탈을 벌이기에 이르렀고, 결국은 暴惡無道한 夏桀을 축출하여 맹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가 역사상 商朝의 출현이다. 그 후 紂王의 이르러 멸망하기까지 자세한 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竹書紀年》에서는 496년, 《三統曆》에는 629년으로 나타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商朝의 출현은 夏에서 商으로 이어지는 부족장의 교체로 이해하고 있는데, 필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商湯革命」으로 지칭되는 중국사의 새로운 발전 기운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첫째, 정치적으로 노예제 국가의 전제성이 더욱 강화되었다.[54] 夏禹에서 시작된 왕위의 부자상속제는 상대 후기에 이르러 형제상속에서 다시 적장자 상속제로 바뀌며 세속성을 강화하였다.[55] 그리고 「作邑(읍을 건설한다)」사업을 통해 주변 부족을 부단히 복속시켰고, 그들로부터 점복의 재료인 거북의 가죽 등을 공납으로 요구하였다.[56] 그 외 통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神貞官僚 정치 세력의 등장[57] 및 강한 군대 조직 등은 이전 시기에 볼 수 없는 집권력의 성숙한 표현이요, 중국 정치사의 새로운 이정표였다.

53) 商代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董作賓씨는 기원전 1751년(「中國上古史年代」, 《臺灣大學考古人類學報》, 第11期, 民國47年), 陳夢家씨는 기원전 1579년(「殷商與夏周的年代問題」, 《歷史研究》, 第2期, 1955年), 그리고 范文瀾씨는 기원전 1562년(《修訂本中國通史簡編》第1篇, 上海人民出版社, 1964年)으로 보고 있다.

54) 서양 고대사의 「노예제」의 의미가 중국 고대사에도 적용 가능한지의 문제는 학계의 쟁론으로 남아있지만 현재 대륙 학자들은 이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55) 王國維, 「殷周制度論」, 《觀堂集林》卷10, 藝文堂書館, p. 117.

56) 島邦男, 《殷墟卜辭綜類》, 汲古書院, 1971年, p. 43.

57) 伊藤道治, 「殷代における祖先祭祀と貞人集團」《研究》28號, 神戶大學, 1962年, PP. 10~11; 井乃鉉, 《商周史》, 民音社, 1984年, p. 42.

둘째, 경제면에 있어 상은 상왕에 의해 분봉된 각 지역으로부터 공납을 받았고, 나아가 조세 제도의 개혁, 시비법 및 관개시설의 발전 등을 통해 농업 생산력 증대를 꾀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제 왕권의 안정을 구가하였다. 더구나 잉여 생산물의 교역을 통해 이윤까지 추구하였다.[58]

셋째, 사회적으로 商은 계급주의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商王은 통치권내에 있어 오직 「余一人」임을 자처하며 정치·종교의 우두머리로 군림하였고, 그 밑으로 백성으로 총칭되는 지배귀족, 국가에 대해 공납과 병역·요역을 징발당하는 자유농경민인 小人 혹은 王人, 그리고 순장과 제사의 희생물인 노예계층의 구별이 엄격하였다.[59]

넷째, 문화적으로 商은 中國史가 문명단계에 접어드는 길목이었다. 복속된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공납 등 풍부한 물질생활과 안정된 통치가 이에 기여한 바도 컸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문명 사회의 가늠자가 되는 문자의 사용은 그 문명화 정도를 촉진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河南省 安陽 小屯村 殷墟에서 출토된 다량의 甲骨文과 靑銅銘文(金文), 그리고 陶文·石刻文字 등은 당시 문명화의 전제 조건인 문자 사용의 풍부함을 밝혀주는 유력한 증거이다. 은허에서 발굴된 갑골문자는 商 후기 국사의 길흉을 점친 내용이 주류여서 「殷墟卜辭」라 지칭하는데, 그 문자의 구성 원리는 이미 회화문자의 단계에서 벗어나 현행 중국 문자의 골격이 되는 六書의 원리를 구비해 놓고 있는 점에서 문자학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학에 있어서도 갑골문의 출현은 《史記》등 문헌상에 보이는 商代의 역사에 대해 수정·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상 商代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시 요약하면 전제 정치의 강화, 관료제 및 계급사회의 출현, 공납제, 문자의 사용 등은 이전 시대에 비해 대단히 발전한 국가 형태의 면모를 구비해 놓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증가하는 인구 및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조직화, 분업화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국 통치의 기반이 되는 관료의 양성과 교화 사업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걸맞는 교육 기구 및 그 지표는 제국통치의 안정과 전제왕권의 강화에 부합되는 관료의 양성 (「育」)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이다.

58) 于省吾, 「殷代的交通工具和驛前制度」《人文科學學報》, 第2期, 1955年, pp. 78~114.
59) 井乃鉉, 앞의 책, p. 71.

1. 商代의 교육 기구

우선 商代에 관련된 교육 사료를 보면 이전 시기에 비해 교육 기구가 다양하면서도 복잡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전제 왕권의 강화 및 사회 분업화 현상과 관계된 때문인 것 같다. 먼저 이와 관련된 사료를 참고해 보자.

① 「設爲庠·序·學·校, 以敎之. 庠者, 養也, 校者, 敎也. 序者, 射也, 夏曰校, 殷曰庠, 周曰序.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孟子·滕文公上》)

② 「凡養老, …… 殷人以食禮,[60] …… 五十養于鄕, 六十養于國, 七十養于學. …… 殷人養國老於右學, 養庶老於左學.」(《禮記·王制篇》)

③ 「米廩, 有虞氏之庠也. 序, 夏后氏之序也. 瞽宗, 殷學也.」(《禮記·明堂位篇》)

④ 「聞三代之道, 鄕里有敎; 夏曰校, 殷曰庠, 周曰序」(《漢書·儒林傳序》)

이에 의하면 商代의 교육기구는 「庠」과 「學」(左·右의 구분이 있음), 그리고 새롭게 출현하는 것으로 「瞽宗」이 있다. 그 외 甲骨卜辭에는 「大學」이란 명칭도 보인다. 이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다.

「庠」은 고전 문헌외에 甲骨卜辭에도 보인다. 전설에 의하면 이는 虞舜時代의 학교로 전하고 있다(③). 이를 위 《禮記·明堂位》 注에서는 「藏米於學宮也, 亦敎孝之義」, 그리고 위의 《孟子》에서는 「庠者, 養也」, 《文獻通考·學校考》에 인용한 江陵項氏의 《松滋縣學記》에서는 「有虞氏始卽學以藏粟, 而名之曰庠, 又曰米廩, 則自其孝養之心發也」라 하여 「庠」은 원래 식량을 저장해 두는 창고로 해석하고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이를 넓은 집(广)에 양(羊)을 사육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 가운데에는 공통성의 사실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庠」은 씨족공동체 시대부터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당시의 사회는 계급이 출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씨족들에 의한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을 것이다. 따라서 씨족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생산한 동·식물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이를 저장하고 나누어줘야하는 큰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을 바로 「庠」이라 불

60) 孔穎達疏曰 : 「食禮者. 有飯有肴. 雖設酒而不飮, 其禮以飯爲主, 故曰食也. 其禮有二種 ; 一是禮食, 故《周禮·秋官·大行人》曰 : "諸公三食之禮有九擧", 及公食大夫禮之屬是也. 二是燕食者, 謂臣下自與賓客旦夕共食是也.」

렀던 것 같은데, 어떤 사서에서 이를 「米廩」이라 하는 것은 주로 곡물 따위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에서 교육이 배태된 것일까? 위 《禮記》 등 여러 사서에서 말하는 「庠」의 교육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孝行敎育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이를 실시하였는지는 의문이다. 「孝」는 유가에서 강조하는 교육 내용으로 《論語》등의 설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에 대해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이다. 그러나 모계 씨족 사회에서는 유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부모에 대한 효도 관념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孝」의 의미는 연하자가 연장자에 대한 도리, 즉 「悌」의 의미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해석하자면 이 역시 위에서 언급한 養老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여기에서 실시했던 이유는 첫째, 생산력 증대를 꾀할 수 있고, 둘째, 선인들의 경험을 후대에게 전승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노동 생산력을 상실한 노인들을 부양(養老)해 주는 대신 아직 노동력과 생산력을 구비하지 못한 어린애들을 돌보는 책임까지 전가함으로써 씨족들의 생산력의 극대화 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들로 하여금 항상 어린애들과 함께 어울리도록 함으로써 씨족 내부의 규율이나 자신들의 선험담, 그리고 조상의 내력 등을 가르쳐 주게되어 씨족의 전통 및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때문에 《孟子》에서는 「庠」을 특별히 「養」이라 풀이한 것 같다. 「기른다(養)」의 의미는 노인에 대해서는 「供養」, 어린이에 대해서는 「養育」,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는 「飼養」한다는 의미에 모두 쓰일 수 있는 동사인데, 《孟子》의 의미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함축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량을 저장해 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곳은 자연히 씨족 구성원들의 공동 집회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周族이 과거 公劉時代 冬閑期에 전체 구성원이 함께 모여 羊을 잡고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公堂」[61]의 성질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청대 고증학자 陳奐은 이러한 「公堂」을 周初의 小學이라 말하면서 직접 「有虞氏의 庠制에서 연원한다」[62]고 하였다. 특별히 羊을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의미와 「庠」에 「羊」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과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61) 《詩經·豳風·七月條》.
62) 《詩毛氏傳疏》 卷15中.

당시 羊이 제사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희생물인 것과 관계된 때문이 아닌가 싶다.

夏代에도 有虞氏의 이러한 유습을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없다. 필자는 이를 두가지 의미로 추측하고 싶다. 하나는 문헌상의 생략일 가능성이며, 다른 하나는 부족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즉, 商은 夏族을 정복한 부족장이기 때문에 夏族의 전통인 「序」 대신 그들의 전통인 「庠」을 주창한 것과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庠」은 商族 이전의 有虞氏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므로 有虞氏와 商族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결국 「庠」은 씨족들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 집적이 주된 기능이었고, 부수적으로 노인들에 의한 아동 교육 및 씨족의 집회 장소 등으로 활용된 공간이었을 것이다.

《禮記 · 王制篇》에는 「殷人養國老於右學, 養庶老於左學.」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鄭玄은 「右學大學也. 左學小學也」라 주를 달고 있는데, 이는 周代 이후 대학과 소학 체계가 갖추어지고 난 후의 관점에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虞舜時代에서 비롯된 「養老」는 夏后氏나 商族을 막론하고 꾸준히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庠」과 「學」을 모두 상대의 교육 기구로 보았을 때 이 두 기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養老를 두 군데에서 실시해야만 했던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이 두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庠」의 기능이 대략 밝혀진 이상 이들의 관계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고 싶다.

문헌 기재에 의하면 「學」은 夏 · 殷 · 周 三代에 이르러서야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따지면 有虞氏 때에 출현하는 「庠」이 「學」보다 빠르다. 卜辭에는 이 두가지 문체가 모두 보인다.[63] 그러나 「學」이 「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하고 있으며 문체 또한 다양하다.[64] 따라서 필자는 商代 이 두 교육 기구의 관계는 商代에 모두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기능은 차별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商은 전제 왕권을 강화해 가는 시기였다. 따라서 통치의 강화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첨병 역할의 관료를 육성해내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관료 양성을 직접 장악해야만 하였고, 아울러 이전시기 전부족을 대

63) 陳夢家, 《殷墟卜辭綜述》(科學出版社, 1956年), pp. 512~513에 상세하다.
64) 앞의 주63)와 같음.

상으로 하던 교육도 이제는 집권 계층의 자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특권화 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집권층의 자제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이 바로 문헌이나 卜辭에 자주 등장하는 「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본의 教育史家 多賀秋五郎씨는 商代의 교육은 「𦥑」에서 아들자(子)가 첨가된 「學」으로의 발전이라 하였다.[65] 「子」는 귀족, 즉 집권층의 자제를 두고하는 말이다. 商代에는 이미 계급 사회의 성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商代의 교육은 이전 시기의 庠·序 教育에서 점차 學의 교육으로 전환 내지는 통일되고 있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싶다.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을 것 같다. 대신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편벽된 지역이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는 씨족 사회의 전통에 따라 庠·序의 교육 유풍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위 《史記》나 《漢書·儒林傳》에서 말하는 「聞三代之道, 鄕里有教, …… 殷曰庠」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성격의 교육 유풍을 두고하는 말 같다.

기타 商代 「序」의 교육 성격은 《孟子》나 《禮記》에 전하는 내용이 이전 夏代의 상황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각 부족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풍을 바탕으로 행해진 무술 따위의 교육 장소였을 것 같다.

「𩫖宗」은 商代에 처음 출현하는 교육 기구의 명칭이다. 그 교육 성질에 대해서는 《國語·周語下》에 전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周 景王 23年 왕이 「无射之鐘」을 주조하기 위해 鳩에게 樂律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 「古之神𩫖考中聲而量之以制, 度律均鐘, 百官軌儀, 紀之以三(필자주 : 天神·地神·人鬼), 平之以六(律), 成于十二(律品), 天之道也. 夫六, 中之色也, 故名之曰黃鐘, 所以宣養六氣·九德也. 由是第之 : 二曰太簇, 所以金奏, 讚揚出滯也. 三曰姑洗, 所以修潔百物, 考神納賓也. 四曰蕤賓, 所以安靖神人, 獻酬交酢也. 五曰夷則, 所以詠歌九則, 平民無貳也. 六曰无射, 所以宣布哲人之令德, 示民軌儀也.」

65) 앞의 《古代アジア教育史研究》第1章, 「古代中國における"𦥑"の成立と"學"への展開」, pp. 3~38.

한편, 삼국시대 吳人 韋昭는 그 注에서 「神瞽」를 「古樂正, 知天道者也, 死以爲樂祖, 祭于瞽宗」이라 하였다. 馬端臨도 「瞽宗樂師之所宗也. 古者有道德者使教焉, 死則以爲樂祖, 於此祭之」[66]라 하여 이와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瞽宗」은 樂祖를 제사하는 종묘라 할 수 있다. 樂祖는 고대 禮樂의 선현으로 《周禮·春官·大司樂》의 기재에 의하면 「凡有道者, 有德者, 使教焉, 死則以爲樂祖, 祭於瞽宗」이라 하여 고대의 성현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직능은 대단하였던 것 같다. 위 기재의 내용처럼 하늘과 땅 사이의 6가지 기운(六氣)과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할 9가지 덕(九德)이 잘 길러지도록 함으로써 百物이 깨끗해지고 神人이 安靖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哲人들의 영덕을 잘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의 규율이 잡히도록 해야하는 등 그가 관장하는 일은 국가의 제도 제정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는 것까지 온갖 망라된 것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天人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를 「知天道者」혹은 「神瞽」라 불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殷人들은 「殷人尊神, 率民以事神」[67] 할 정도로 尊神思想이 대단하였고, 이에 대한 숭배 역시 철저하였다. 더구나 고대에 제사는 국가의 大事였고[68] 이를 거행함에 있어 禮樂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담당하는 교육은 주로 禮樂教育이었을 것이며,[69] 대상은 주로 귀족들의 자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禮記·文王世子篇》에 周代 世子의 求學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는 殷의 제도를 계승한 것이라 말하면서 「禮在瞽宗」이라 하여 王世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으로 볼 때 고종은 귀족들에 대해 禮樂教育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춘추전국 이전 제사와 전쟁은 대부분 귀족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이러한 특권 의식의 형성에 있어 당시 교육의 내조는 소홀히 볼 수 없다.

66) 《文獻通考·學校考》 卷40. 한편 《禮記·夏官·大司樂》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전한다.
67) 《禮記·表記》.
68) 《左傳·成公十三年條》曰 : 「國之大事, 唯祀與戎」이라 하였다. 祀는 귀신에 대한 제사, 戎은 군사, 즉 전쟁을 의미한다.
69) 《文獻通考·學校考》曰 : 「殷人以樂造士, 其學爲瞽宗」이라 한 것을 방증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기타 여러 학자들도 은대의 예악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근거 자료는 빈약하다.

2. 甲骨卜辭의 「學」 및 「大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卜辭文에 보이는 「學」字는 그 쓰임새가 다양하면서도 대단히 복잡하다.[70] 더구나 「大學」이라는 명칭과 함께 이를 제사의 장소로 占卜한 내용도 보인다. 어떤 학자는 「學」字의 다양함과 복잡함 속에는 「學」의 실질적인 교학 내용 및 교학 활동, 그리고 교학 장소의 의미까지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71] 즉, 「學」은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卜辭文에 이처럼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는 것은 당시 국가의 대사라 할 수 있는 제사나 전쟁과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직감하고 있었다는 얘기와 통한다. 그리고 「大學」을 祭典의 장소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당시 교육을 그만큼 신성시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아래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다.

「勿 ?」
「王惟癸～? 于甲(?)～? 」
「于祖丁且～? 于廳且～? 于大學～?」[72]

「」는 포로를 제단에 바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73] 위 卜辭의 占卜 순서는 먼저 제사를 거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어 구체적인 날짜와 거행 장소를 물어보았다. 그 장소는 3가지, 祖丁의 神壇, 宗廟내의 庭神壇, 그리고 大學이다. 그 大學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大學을 제전의 장소로 여기고 있는 것은 교육이 종교에 예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훗날 태학이나 국자감 등 교육 장소에 先聖先賢을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것 같다. 어떤 학자는 여기에 보이는 「大學」은 문헌이나 고고학의 물증을 통틀어 세계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 말하고 있다.[74]

70) 자세한 내용은 朱啓新, 「從甲骨文字看殷商時代的教育」(《教育研究》第11期, 1982年) 참고.
71) 毛禮鋭 等 主編, 앞의 책, pp.65～66 참고.
72) 王貴民, 「從殷墟甲骨文論古代學校教育」(《人文雜誌》第2期, 1982年)에서 인용
73) 앞의 주72)와 동일.
74) 毛禮鋭主編, 앞의 책, p.67. 한편, 청대 고증학자 焦循은 商代 출현하는 「學」이나 「大學」은 商代의 학교를 총칭하는 것으로 庠·序·瞽宗은 이를 세부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할 뿐이라 하였다.(《孟子正義》卷10, 中華書局, 1987年, pp.343～347)

그러나 필자는 사실상 「學」을 달리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싶다. 단지 특권계층의 자제들만이 다니는 학습장이었기 때문에 위엄이 깃들어 있는 「大」(혹은 "太"일 가능성도 있음)字를 붙여 불렀을 것이다.

그 외에 卜辭文에서는 학교 등교 및 교학에 관한 내용까지 보인다.

① 「丙子卜, 貞, 多子其 學, 亡不 𡆥大雨?」[75]

② 「乎多 伊自于教王族」[76]

③ 「丁酉卜, 其乎以多方小子小臣其教戒?」[77]

첫번째 사료는 자제들이 학교갔다 돌아오는 길에 큰비를 만나 곤혹을 치루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을 占卜한 것인데, 學의 설치 지점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다.

두번째 사료는 상왕이 왕족들에게 문자교육을 명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78] 참고할만한 내용이다. 《尚書·多士篇》에는 「惟殷先人, 有册有典」이라 하여 상대에 이미 册典이 구비되어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단, 교육 장소에서 문자로 된 교재가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만일 사용되었다면 문자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을 것이다.

세번째 사료에서는 당시 구체적인 교학 내용까지 밝혀주고 있다. 그런데 「多方小子」를 「小臣」이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戒」를 가르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卜辭文에는 「多子」·「多子族」·「多方」이란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 전자 두개의 의미는 상대에 분봉한 작위 가운데의 하나인 「子」를 여러개 통칭해서 하는 말이다.[79] 이들은 왕실과 혈연적 관계가 있어 평상시에는 도읍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수렵 등을 통해 무술을 연마하고 왕실의 제사에 참여했으며, 유사시에는 전쟁에 나아가 왕실을 보호하였다.[80] 그래서 郭沫若씨는 「小臣」을 「인근 국가의 자제」라 해석하고 있다.[81]

75) 「병자일에 점복합니다. 貞이 상제에게 묻노니, 자제들이 학교갔다 돌아오는 길에 큰비를 맞지는 않겠습니까?」. 이상 林泰輔, 《龜甲獸骨文字》卷二, p.25 第19片에서 인용.
76) 羅振玉, 《殷墟書契前篇》第5, p.8 第1片에서 인용.
77) 郭沫若, 《殷契粹編》(科學出版社, 1965年), p.114 第1162片에서 인용.
78) 郭齊家·喬衛平共著, 앞의 책, p.56.
79) 董作賓, 「五等爵在殷商」(《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7本, 民國25年), p.422.
80) 貝塚茂樹, 「殷墟卜辭お通じて見た殷代文化」(《中國古代史學の發展》, 弘文堂, 昭和42年), p.291.
81) 앞의 《殷墟粹編·考釋》, p.149.

이들이 배우는 「戒」는 卜辭文에는 사람이 창(戈)을 들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敎戒」를 창을 들고 근무서는 것과 창을 들고 舞蹈를 행하는 두가지 내용을 가르쳤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82]

이상 3가지 卜辭의 내용으로 볼 때 당시 「學」은 계급 사회가 형성되는 가운데 출현한 교육의 귀족화를 상징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상대에 이미 골격이 완성되어 周代 王官學 및 貴族學의 토대가 되어 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卜辭에는 「學多□父師于敎」[83]라는 내용이 보인다. 「父師」의 직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추측해보면 《周官》에서는 「父師」를 「師氏之屬, 掌以美敎國子以三德三行, 父與大通」이라 하여 이를 「大師」와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또한 《禮記·文王世子》에는 「父師司成」이란 말이 보인다. 이는 周代 대학 교육을 담당하는 직이다. 이 두개의 자료는 위 卜辭의 사실과는 시기적으로 동떨어져 있지만 周初의 예의제도는 대부분 이전 시대의 것을 沿用하였고, 이를 집행하는 관리 역시 대부분 商의 유민들이었기 때문에 卜辭에서 말하는 父師와 周代의 父師는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史記》에서도 周代의 父師는 商末 禮器를 관장했던 太師, 少師의 직을 겸비한 것으로 학교에서 거행하는 제전 및 예악교육을 관장했다고 말하고 있어,[84]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추측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商代 종교 예의와 교육, 관료와 교사는 곧 불가분의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대의 예악 교육 제도나 秦代 官師合一의 교육 제도는 商代의 교육제도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대의 교육은 국가 조직의 확대 및 신분제 사회의 발전, 분업 체계의 발달, 계급의식의 고착, 문자의 사용 등으로 교육 내용이 다양하였고 또한 강화되었다. 「學」 및 「瞽宗」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특수 계층의 자제를 대상으로 당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한 것이다. 단, 이러한 교육 기구는 중앙에만 설치된 것이었고, 지방의 경우는 아직

82) 沈灌群, 《中國古代敎育與敎育思想》, 胡北人民出版社, 1956年, p. 4.
83) 郭齊家·喬衛平共著, 앞의 책, p. 57에서 인용.
84) 《史記·周本紀》.

분봉 및 미정복지가 많아 중앙에서 관장하는 교육 기구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대신 鄕里에서는 이전 씨족사회에서부터 내려오는 庠·序의 교육 전통을 자체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맺 음 말

孔子는 「周鑑於二代(필자주;夏·商을 지칭), 郁郁乎文哉! 吾從周.」[85] 라 하였고, 또한 「殷因於夏禮, 所損益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可知也. 其或繼周者, 雖百世可知也.」[86] 라 하여 周代 문화에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항상 夏·商 二代의 전통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孔子 이후 이 두개 朝代에 대한 유가들의 언급이나 사서에 반영된 내용은 대부분 周代의 문화를 정통으로 보고 이전 시대의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 교육에 대한 언급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夏·商 양대에 관한 교육사 연구는 신화나 전설의 색채가 농후하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언급을 회피해 버리고 있는데, 최근 고고학의 연구 성과와 문헌상의 내용을 결부시켜 이해해 보았을 때 이는 중국 교육사 발전의 맹아로서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周 및 춘추전국, 秦·漢으로 이어지는 중국 교육 발전의 특징 또한 여기에서부터 그 기초가 다져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부족들의 전통 교육이 점차 국가 권력에 의해 장악되면서 중앙화·일원화 되고있다. 이를 「庠」·「序」교육에서 「學」교육으로의 발전이라 얘기하고 싶다. 有虞氏의 庠, 夏后氏의 序는 씨족 사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씨족 전통의 교육 제도로써 국가와 전제 왕권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부족장의 교체에 따라 그 시대의 교육을 대표하였지만, 夏末 이후, 특히 商代에 이르러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고 전제 왕권이 강화된 이후에는 중앙 귀족학교인 「學」으로 일원화하여 제국 통치의 첨병인 관료들을 양성해 내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교육은 정치에 예속되기 시작하였고, 교육 장소는 국가에서

85) 《論語·八佾》.
86) 《論語·爲政》.

필요로하는 관리 양성소가 되었다.

둘째, 禮樂敎育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중국의 고대 교육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養老 등 노인을 공경하는 禮의 배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庠·序·學의 교육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商代에 學이 출현하면서부터는 樂이 교육 내용으로 더 첨가되었는데, 이는 樂이 제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商代에는 尊鬼敬神의 관념이 철저하였고, 제사는 또한 통치 귀족계급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그 자제들에게 樂을 가르쳤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商代의 禮樂은 「學」의 주요 교육 내용이자, 귀족들의 소양으로 지식의 가늠자가 되었을 것이다.

당시의 樂은 제사에서 신과 인간이 정서를 교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었다. 종법과 적장자 상속제에 기반을 둔 봉건 제도가 절정기에 달한 周代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봉건 통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특성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禮法에 근거하여 귀족들에게 예악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孔子는 춘추 전국시대 周代의 禮樂이 붕괴될 위기에 이르러 이러한 귀족들의 禮樂을 민간화시켰다는 점에서 교육사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국가에서 교육을 장악하고 이를 차별화함으로써 계급 사회를 고착시켜 나갔다. 이러한 경향은 夏代 東序 및 西序의 출현, 國老와 庶老의 분류를 그 기점으로 볼 수 있다. 商代의 「學」은 그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商代의 「學」은 단순히 교육 장소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집권 통치의 의욕 기구로 보아야 한다. 나중에는 이를 大學과 小學으로 구분하여 관료 양성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이는 전제 왕권 확립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이다. 전제왕권의 확립과 「學」의 출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이다. 漢代 이후 출현하는 太學, 國子學, 四門學 등 중국의 전통 교육 기관은 전제왕권 확립의 완성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교육은 처음부터 정치의 종속물에 불과하였으며 통치자는 교육 사업을 통해 사회 통치의 안정과 통치 수명의 연장을 구가 할 수 있었던 것이다.